

20년 연구끝에 '대승기신론 통석' 펴낸 이흥우 서울대 명예교수

### 교육학자가 풀이한 깨달음의 세계

“대승기신론은 문헌학적이거나 내용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적 감동과 아름다운 문장의 가치 또한 크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와 시적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기신론 공부와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대승기신론 통석(通釋)>을 출간한 이흥우(67·사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한 교육학자. 그러나 불교신자는 아니다. 왜 어떤 인연으로 대승불교시대 후기 나타난 불교이론서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꼽히는 <대승기신론>을 연구하게 됐을까?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40년중 딱 절반이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지금 당장 영어로 된 서양 교육학 책이 한 권도 없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교육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뒤에 알고 보니 이게 화두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때부터 전공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않는 유가와 도가 사상에 관련된 고전들을 한학기에 한권씩 학생들과 읽고 그것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교육이론의 동양적 이론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교과목을 담당하던 저에게도 곱질은 깨는 아픔이 수반했습니다. 그 계통의 책을 보다보니 결국 불교에도 읽어야 할 책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미쳤고, 그때 눈에 띈 것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이 교수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술(論疏)이라는 대승기신론의 제목부터가 교육학적 의미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이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起信)’은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믿음, 세상은 진여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믿음, 우리의 삶은 세상이란 것이 생기기 이전의 진여로 되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진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기신론>은 우리가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고.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을 좁은 의미에서 ‘불교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의미와 의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불교신자나 불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독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독자에게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다루며, 따라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다루었다”고 한다. 저자는 “삶의 문제치고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책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대승기신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인 만큼 예, 무엇을, 어떻게 기신론을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에서부터 교육과 종교, 그리고 삶에 관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23장에 걸친 폭넓은 기신론 읽기가 전개된다. 저자는 또한 통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 형식을 빌어 칸트철학으로 대표되는 선형철학을 해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책을 다 읽고 나면 대승기신론은 종교이론이기에 앞서 교육이론이요, 삶의 이론이라는 점을 갈파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 본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대승기신론 번역과 자세한 주석을 덧붙였다. 이것은 통석에서 인용되고 논의되는 대승기신론 본문의 구절을 쉽게 찾아보고 독자 또한 저자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하려는 저자의 배려에서 비롯됐다.

이 책은 부록으로 대승기신론 본문 번역과 주석, 그리고 기신론에 대한 하께다(Yoshito S. Hakeka, 일본학자) 해설과 저자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대승기신론 통석**  
이흥우 지음  
김영사 | 3만5000원



### 전통사찰 총서 완간

21권 제주도편 끝으로 14년만에 마무리

사찰문화연구원이 전통사찰총서 제 21권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를 발간했다.

이로써 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인 신대현 박사의 노력으로 시작된 전통사찰총서 발간작업은 1993년 제 1권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이번 제 21권 제주도편까지 14년에 걸쳐 마무리됐다. 전통전통사찰총서 21권인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는 5부로 구성됐다.

1부 ‘제주의 전통사찰’은 7월말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관음사를 비롯 법화사 불탑사 월정사 천왕사 제석사 월정사 월영사 선광사 보덕사 등 총 10개 사찰을 수록하고 있다. 2부 ‘제주의 주요사찰’ 편에는 제주 사암연합회와 제주불교사연구회의 추천을 받은 34개 사찰이 수록됐다.

3부는 고려 해일, 조선 허응보우와 환성지안 스님 그리고 근현대 불교사의 획을 그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김연일 방동화 스님, 비룡 스님 서경보 스님등 18인의 전기가 실려있다.

4부 ‘제주불교사’는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현재까지의 역사를 수록했고, 5부 ‘제주의 절터’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절터의 역사와 유적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총서의 보완작업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솔바람출판사(대표 동출 스님)는 연내에 제 1-2권 강원도편과 2007년 3-5권, 8-12권의 증보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300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집을 한정판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02)720-0824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다라니 공덕과 영험담 등 소개

‘불정존승다라니’를 수록한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주된 내용은 제석천(帝釋天)이 선주천자(善住天子)에게 죽은 뒤에 일곱번 축생의 세계에 태어날 고통을 가했으며 여기고 부처님께 구제방법을 여쭙어서 받은 다라니의 공덕과 인연을 설한 것이다.

“불정존승다라니”는 날마다 21번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수명이 연장되며, 액난이 제거되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이 다라니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송되었다.

고봉법사가 이번에 발간한 <불정존승다라니경 독송·사경기도>집은

송경의식을 소개하고, <나무불정존승다라니경>을 수록했다. 또 당나라 계면국(지금의 캐시미르지방) 불타라라는 사람이 <나무불정존승다라니경>을 683년 중국 장안으로 가져온 이야기와 기도 영험담, 사경방법, 다라니 사경등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불정존승다라니경 독송·사경 기도**  
고봉법사 지음 | 하늘빛 | 6000원



### 새로나온 책

**■ 바다를 삼킨 물방울**(주희 범 지음, 불지사) =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다. 한국에서 할랄단신 걸렸던 이 여가에 걸맞게도 수행하던 자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나 까마득하기만 하다. 화엄사를 창립할 당시, 나 자신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짧은 영어도 못하고... 수행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내 복잡한 곳에 있었을 지도 모른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포교를 펼쳐온 범정 스님의 만행기. 이 산문집은 스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화엄사를 창건하고 포교활동을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풀어 썼다. 또 저자가 신문, 라디오, TV 등에 발표해온 글을 수정정리하여 묶었다.

**■ 꽃섬, 독도의 울음**(랑승만 지음, 문학아카데미) = 8·15 광복 61돌을 기념하는 원로 시인 랑승만의 열 다섯번째 시집 <꽃섬, 독도의 울음>이 발간됐다. 이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 ‘신라 천년의 꽃섬, 독도의 울음’은 독도에 대한 최근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시인의 분노와 지극한 애정을 전파 장사로 집필한 작품이다. II부 ‘영산재 24마당’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영산재 총사위 스님 네 마당 전과정을 작품화했다. III부 ‘간난이 한’은 시인의 사모곡이다. 50년 넘게 시만 써온 랑승만 시인이 20여년 전 신라불교 장엄이 된 몸으로 가시밭 삶을 살아오면서 왕성한 시작활동들을 해 온 역경을 실었다.

**■ 붓다, 행복의 길을 보이다**(K. 스리 담파나다 지음, 정승) = 우리의 괴로움은 일체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부와 재산, 건강과 청춘이 언제까지나 유지되길 바라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스러져 버린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주름지고 희끗거리는 백발로 변할 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는 근심과 불행이 찾아온다. 이 책에서 붓다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사색하여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베푼다.

우리는 이생에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만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붓다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사색하여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베푼다. 이 책은 바로 붓다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김위의 삼국유사 미려M&B, 고문구, 1만5000원
  - 신심명 증도가 동국역경원, 해원 스님, 8000원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마음산책, 김홍근, 1만2000원
  - 생명산림, 종이겨울 김재일, 1만5000원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사 현암사, 여연 스님, 1만5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초교리 강좌개강 (8월 30일)

## 2006년도 정릉 봉국사 불교교양대학 신입생 모집

- 1. 불교교양대학 개설 취지**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심과 원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보고, 믿고 행하고, 증득하여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불교교양대학 제 1기생을 모집합니다.
- 2. 교과목**

구분	과정	강의과목
기초교리반	3개월	불자에절과 기초상식, 불교교리 불교의 수행법, 불교의 세계관, 불자의 신행과 실천, 선실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접수일자	강의장소	특전
주간반	불교초심자및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분	· 입학원서 1통 (소정양식)	2006년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봉국사내 천불전	· 생활보호대상자 · 보훈대상자
야간반		· 반명합판 사진 2매			· 입학금면제

- 4. 입 교 일 : 2006년 8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봉국사**
- 5. 원서교부처 : 본사총무소 TEL 02)919-0212 / FAX 02)919-0216**  
서울시 성북구 정릉 2동 637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봉국사 불교교양대학**

##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동철 밀 양

...에 마음의 안과 밤을 여실히 깨닫아  
상행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려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특징 .....**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자기발전· 생활속 수행과 ฆ摩 실용성·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유행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제원 선사사상역사 / 저자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주는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권강대선사의 인가계자인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 일제송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자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진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말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